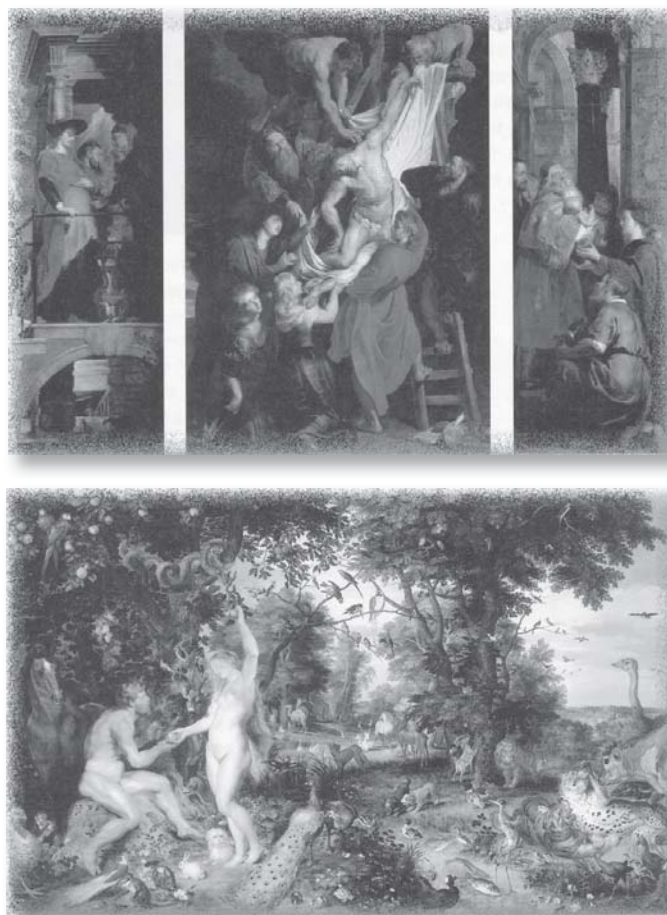




- 바로크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 -
박재현 작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이다.

사회적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모두 가졌던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루벤스다. 그는 생전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루벤스는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그림을 공부한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고전학, 고대 조각 연구에 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미술의 색채에 매료된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보여준 예술가로서의 역량과 명성은 곧 조국에까지 전해지고 종교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는다.

루벤스의 대표적인 종교화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다. 이 트립티크는 안트베르펜 대성당 안에 있던 화승총 병사들을 위한 예배당의 제단화로 제작되었다.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 가운데 부분은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왼쪽의 패널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 중에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하고 있는 장면이다. 화면 오른쪽 패널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고 있다. 제사장 뒤 얼굴이 정면에 나와 있는 인물이 당시 안트프로펜 장이자 화승총병의 연대장이었던 니콜라스 로콥스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루벤스에게 이 작품을 의뢰했다. 루벤스는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를 그려 넣었다.

화면 가운데 그리스도 발치에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와 글리오파의 아내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 옆에 성모가 그리스도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창백한 성모의 얼굴과 몸짓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의 끔찍한 고통을 나타낸다. 성모가 두 명의 마리아와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지침에 의해서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서 그대로 그려주기를 바랐으며 요한 복음서에 성모가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루벤스는 교회에 만족을 주기 위해 성서에 따라 그렸다.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으로 그가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있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신은 고대 그리스 조각 라오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루벤스는 그리스도의 몸을 라오콘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라오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작품으로 이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벽을 허물었다.

루벤스는 천부적인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한다. 그의 뛰어난 사업가적 기질은 화가로서 성공의 바탕이 된다.

유럽 전 지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자 루벤스는 빠른 시간에 많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공방을

운영한다. 공방에서 세부적인 그림들과 뛰어난 전문 작업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문 화가들은 루벤스가 그림을 완성하기 쉽게 그림의 배경은 물론 모델의 의상 등을 그렸다. 하루 종일 전문 화가들은 루벤스 밑에서 일을 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공방의 생산라인은 주문일자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가 없었다.

루벤스는 작품 제작에 손을 댄 만큼 작품의 등급을 매겨 돈을 받았다. 혼자 제작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서명만 한 작품은 2등급으로 취급해 낮은 가격을 받았다. 효율적인 공방 운영 덕분에 루벤스는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루벤스가 전문가를 고용해 공동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에덴동산과 인류의 타락〉다. 이 작품은 친구이자 화가인 얀 브뤼겔과 공동 제작했다.

화면 오른쪽 아담과 이브가 있다. 이브는 오른손으로는 아담에게 사과를 건네고 왼손으로는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를 잡고 있다. 아담과 이브의 뒤로 큰 사과나무가 서 있다. 사악한 뱀은 사과나무를 칭칭 감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고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은 평생 일을 해야 하고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앞으로 다칠 고난을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의 별거벗은 모습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을 상징한다.

화면 중앙에 염소는 생명의 나무에 뛰어오르고 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 생명의 나무와 산악과 사이에 개울이 흐르고 있다.

아담의 발아래에 극락조와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숭이의 행동이 과일을 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브의 발아래 있는 공작은 기독교에서 영원한 삶과 부활을 상징한다. 곳곳에 동물을 그려 넣은 것은 진귀한 동물들이 모여 있는 에덴동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 작품에서 아담의 머리 위에는 포도가 늘어져 있는데 포도는 후에 그리스도의 피가 될 포도주를 상징한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포도를 그려 넣었다.

얀 브뤼겔은 꽃 그림이 유명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꽃과 나무 동물을 표현했다. 루벤스는 이 작품에서 에덴동산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담당했다.

하지만 그의 생산방식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루벤스는 사람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이 그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그림을 주문한 귀족이나 왕족들을 초청했다.

루벤스는 구매자들을 초청했을 때에는 공방의 전문 화가들은 스튜디오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다. 또한 그는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이벤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비서에게 편지를 쓰게 하거나 책을

읽게 함으로써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구매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했다. 그의 연출된 이미지에 반한 구매자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자신의 개인 스튜디오를 기업적인 공방으로 운영하면서도 루벤스는 외교관 활동을 한다.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는 골동품과 다른 예술품도 수집했다.

루벤스는 자신의 작품과 수집한 예술품을 끼워 팔기 위해 그림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그것과 어울릴만한 다른 예술품을 제안했다.

결국 구매자는 성공한 화가이자 외교관이었지만 겸손한 루벤스가 권유하는 다른 예술품까지 살 수밖에 없었다. 루벤스는 돈에 관한 한 무척 겸손했다. 그것 또한 그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서 그의 태도는 구매자들에게 호감을 샀다.

루벤스의 치밀한 전략은 그의 작품이 유럽의 모든 궁정과 모든 교회에 걸리게 만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루벤스는 풍부한 유머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6개 국어에 능통했던 루벤스는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와 로마 교황, 스페인 펠리페 4세 등 많은 양의 초상화를 의뢰받으면서 그들 내부 사정에 정통하게 된다. 왕족들은 전 유럽의 황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루벤스에게 예술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 역할까지 요구하기에 이른다.

루벤스는 외교관으로서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1629년 스페인 펠리페 4세에게, 1630년 영국의 찰스 1세에게 작위를 받는다.

천부적인 재능을 이용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던 루벤스는 가정적으로도 무척 행복했다.

루벤스는 이사벨라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녀는 병으로 죽고 만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한동안 일에 매달리던 루벤스는 큰 아들과 비슷한 연령의 젊은 여성 헬레나 푸르망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결혼을 결심한다. 귀족 출신의 여성들의 허영심이 싫었던 루벤스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37살이나 어린 신부 헬레네 푸르망을 선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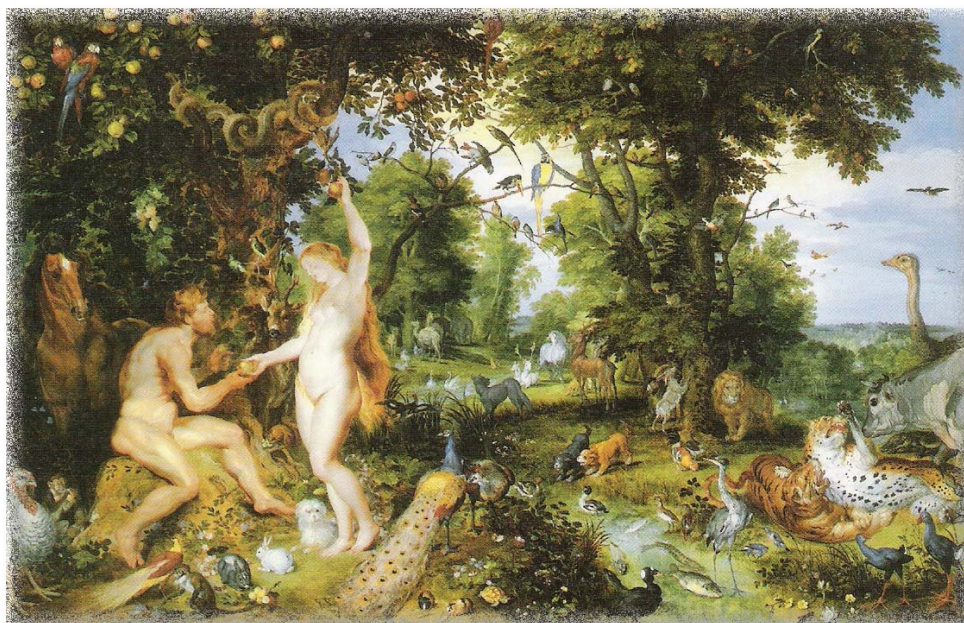
젊고 활기에 찬 헬레네 푸르망과의 행복한 결혼으로 루벤스는 젊은 날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간다. 이때부터 루벤스의 작품은 종교적인 주제보다는 신화적인 주제들이 나타난다.

시골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말년에 루벤스는 숲 속을 산책하면서 풍경화에 매력을 느낀다. 당시 풍경 화가들은 초상화의 부속물로 풍경을 그려 넣었었다. 풍경화가로서 재능을 발견한 루벤스는 진정한 자연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풍경화를 제작한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640)의 초기작들은 종교적인 장면과 세속적인 장면, 신화적인 장면 그리고 초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난 말년은 목가적인 풍경이 주류를 이룬다. ☺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1612~1614년, 나무에 유채, 421*311, 안트베르펜 대성당



〈에덴동산과 인류의 타락〉-1617년경, 목판에 유채, 74*114, 헤이그 마우리츠호이스 왕립미술관 소장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27
Fax : 02)3274-2009
E-mail : myposse@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9월호
(통권 제 45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정재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최재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변성완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중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안병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심영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조규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9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